

즐거운 네트워크 환경 만드는
중계장비 시장주역

솔 리 테 크 _ 정 준 _ 대 표

위성 DMB 시장의 본격적인 개막을 맞아 중계장치를 생산하는 솔리테크의 행보에는 청신호가 밝혀졌다. 이동통신 중계기 시장에 이어 다시 한번 성공신화를 써내려갈 기회를 잡은 솔리테크의 각오는 사뭇 비장하기까지 하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정준 대표는 즐거운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겠다는 경영마인드로 7년째 초심을 지키고 있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그의 경영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진다.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회사, 솔리테크

이동통신 중계기 분야의 선도업체로 손꼽히는 솔리테크의 사무실 입구는 마치 카페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예술작품 전시실에서나 볼직한 조형물 세 점이 눈길을 사로잡는 것. 그 중에서도 'Solid' 라는 영문을 형상화한 조형물은 전문작가에게 직접 의뢰해 제작했다는 솔리테크의 로고이다. 'Solid' 가 로고에 등장하는 이유는 솔리테크의 영문 사명이 'Solid Technologies' 이기 때문이다. 철근을 하나하나 이어 붙여 글자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각 개인이 모여 하나의 회사를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로고 하나를 만드는 것조차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감각을 유감없이 나타낸 솔리테크. 개성 넘치는 17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출근하고 싶은 회사'를 실현해 가고 있는 정준 대표는 '즐거운 솔리테크' 만들기엔 여념이 없다.

솔리테크와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정대표의 신념이다. 고객에게는 좋은 품질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이익을 남겨주며, 협력업체에게는 같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솔리테크가 바라보는 최고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는 출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줘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희망사항이다.

색다른 창업 모델 제시

정대표가 이토록 즐겁게 일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KT의 연구소에 잘 다니고 있던 그가 돌연히 사표를 내고 벤처기업을 차린 이유는 그저 친한 사람들과 의기투합해 하루하루 즐겁게 일해 보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에서였다. 무심코 내비쳤던 포부였지만, 그 말을 들은 지인들은 마치 기다리기도 했다는 듯이 그와 합세했다.

때마침 KT에서는 직원이 창업할 경우 초기자본금을 지원해 주는 '벤처기업육성특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대표의 벤처기업 설립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렇게 등장한 KT 사내벤처1호가 바로 솔리테크이다. 특이한 점은 처음 회사 문을 열었을 당시 사업모델이나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 이는 벤처의 시작 모델이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처음 한 달 가량은 아무 일도 없이 직원들과 무슨 사업을 할까 논의를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이동통신 중계기 개발 용역을 맡게 되면서 아예 사업 방향을 중계기 쪽으로 굳히게 됐죠. 직접 부딪혀 보니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창업 7년째에 접어드는 지금은 이동통신용 중계시스템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위성 DMB용 중계장치(Gap Filler) 기술 개발에도 성공했다. 2003년도 세계경제포럼(WEF)

에서 '세계 30대 기술개척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하는 등 대외적인 성과도 눈부시다. 특히 오는 7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어 또 한번의 도약을 예약해 놓은 상황.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향후 통신 및 방송네트워크산업의 Total Solution Provider가 되겠다는 솔리테크의 야심은 충분한 실현가능성이 점쳐진다.

낙천적 성격은 삶의 원동력

정대표가 꼽는 솔리테크의 경쟁력은 우수한 기술인력과 선도적인 R&D 투자이다. 실제 통신사업자, 장비업체, 대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기술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을뿐더러, 이 중에는 석·박사 출신이 40% 이상을 차지해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회사 방침 역시 솔리테크의 기술력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 스스로 일에 열심을 내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데에 달렸다고.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조직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움직이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이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지요."

사람 중심의 경영을 펼치는 동시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 또한 정대표가 중요시하는 부분. '즐거운 솔리테크'를 표방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울 수만은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일을 하다가 난관에 부딪힐 때는 상황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대표가 직원들에게 주문하는 사항이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분해서 보지 말고 적분해서 보라'는 것. 매순간 즐거울 수는 없으므로 합리적인 자세로 시각을 바꾸자는 현명한 조언인 셈이다.

이 같은 합리적 경영방식은 정대표의 낙천적인 성격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늘 밝은 표정만큼이나 사고방식 역시 낙천적인 그는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물론 돌이켜보면 위기상황도 많았지만 막상 그 고비를 맞닥뜨릴 당시에는 전혀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 일례로 3년 전, 사업 확장으로 크게 적자가 난 적이 있었지만 정작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었다고.

오직 솔리테크가 유일한 관심사이며,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정준 대표. 그의 합리적이고도 낙천적인 경영마인드 덕에 솔리테크의 고도성장 또한 가능하지 않았을까. 즐거운 네트환경을 만들어내는 세계적 통신·방송장비 전문업체로 성장할 솔리테크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